

2021년 10월 17일

#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42편 11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1절]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 송 / 458(통513)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베드로전서 4장 1~11절(신약p.381)

1.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2.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3.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4.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달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5.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6.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7.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 ◎ 말씀선포 / 구속받은 성도의 신분과 삶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과거에는 죄의 종이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자신을 바르게 인식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아인식을 가지고 살

아가야 합니까?

1.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죄가 없는 채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은 인류의 죄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역시 본문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감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나의 죄인 된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 말씀하고,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감옷을 삼으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이것을 마음의 감옷을 삼은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에 대하여 본문 2절에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게 된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남은 생애는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사도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나 믿은 후에는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일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이상히 여겨 비난하지만 성도는 이를 당연하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사도바울은 죄악이 만연한 에베소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영적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거하는 자들이지만 성도는 잠시잠깐 이곳에 머무는 나그네요 거류민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시대 깨어 근신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감옷을 삼고 우리의 영광 육을 거룩함으로 지키며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더욱 거룩한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무엇보다 더욱

2.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 본문 8~11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오직 사랑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성도는 허다한 죄를 덮어 주는 사랑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며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처럼 성도 역시 오직 사랑의 법을 따라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 전에는 자신만을 사랑하고 정욕을 따라 자신의 유익을 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분명 베드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은 목적에 대하여 본문 3~6절에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

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달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 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 주신 사랑은 스스로를 낮추어 이웃을 높이고 자기 생명을 내어 주어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제자인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행실을 죄로부터 멀리할 뿐 아니라 다른 자들의 허물을 덮어 주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3.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되어집니다.

- 거룩한 행실과 사랑의 법을 따르는 삶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분명 성도의 이러한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행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무서운 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성도로서 그 삶은 단 번에 이루어지는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까지 하나님의 자녀 된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정의하십니다. 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명을 말합니다. 성도는 영광스러운 영적 신분에 따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행함으로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 찬 송 / 461(통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 ◎ 폐 회 / 주기도문